

17-8세기 한일외교의 양상 고찰

-대마도의 多田与左衛門과 雨森芳州를 중심으로-

김 영*

(e-mail: youngkim@dhu.ac.kr)

目次

1. 머리말
 2. 『竹嶋記事』에 나타난 多田与左衛門의 행적
 3. 『숙종실록』의 多田与左衛門(橘眞重)에 대한 기록
 - 3.1 숙종20년(1694년) 기록
 - 3.2 숙종21년(1695년) 기록
 4. 雨森芳州의 『交隣提醒』과 ‘안용복사건’
 - 4.1. 雨森芳州
 - 4.2. 『交隣提醒』에 나타난 ‘안용복사건’과 조일관계
 5. 多田与左衛門과 雨森芳州를 통해 본 ‘한일관계’
-

1. 머리말

‘안용복사건’은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일건(竹島一件)’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쟁계’로 불리는데,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 조정이 교섭과 절충을 통해 정식으로 독도가 조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는데 의의가 있다¹⁾. 안용복의 활약으로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독도 영유권의 근거를 명확히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안용복 연구는 이러한 그의 영웅적 활약상을 부각시키거

* 대구한의대학교 부교수, 일본문학·일본문화학

1) 물론 당시 죽도(竹島)는 현재의 울릉도이며 현재의 독도는 마츠시마(松島)라고 불렀다는 점 등 다소 복잡한 점이 존재하지만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를 조선왕조의 영역으로 보았으며 현재의 독도 또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혹은 조선의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주요 근거자료로 사용되어 왔다²⁾.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이나 안용복의 영웅적 삶을 조명하는데 머물지 않고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점화된 일본 측(정확하게는 대마도)과 조선 측과의 대립 및 논쟁에서 보여주는 일본 측 주요 인물의 대응 과정과 그 후 일본 대마도의 지식인 계층 사이에서 확인되는 조선외교에 관한 주요 논의의 흐름을 살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마도 중가 문서인 『죽도기사(竹嶋記事)』에는 일본 측, 정확하게는 대마도도주의 서간을 가지고 도주의 뜻을 전달하며 조선과의 교섭에 응하는 인물로 다다요자에몬(多田与左衛門)이 등장한다. 다다요자에몬(조선에서는 橋眞重으로 부름)은 1693년 10월 안용복 사건과 관련해 대마도에서 파견한 대차사정관(大差使正官)인데, 안용복 일행을 데리고 대마도주의 서간(예조참판,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 앞)을 전달하기 위해 부산 왜관으로 수차례 도해한 인물이다.

『죽도기사』에서 안용복이 일본(대마도)의 교활하고 간교한 음모를 사전에 간파하고 이를 영웅 서사적으로 해결하는 담론의 주역으로 등장한다면, 다다요자에몬은 대마도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애국 투사의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다요자에몬과 대조적으로 조선후기 조일관계의 친선교린을 주장하며 그 이론적 바탕을 확립한 인물이 있다. 바로 대마도의 번유(藩儒) 아메노모리호슈(雨森芳州, 1668-1755)다. 호슈가 유학자로 대마도로 부임한 시기는 1689년인데 그가 쓰시마에 있을 시기에 ‘안용복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는 직접 안용복 사건을 목격하고 해결하는 일에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1726년 간행된 『죽도기사』 교열 작업에도 호슈가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다³⁾.

여기서는 먼저 『죽도기사』와 『숙종실록』에 나타난 다다요자에몬의 행적을 검토해 요자에몬에 관한 한일 양국의 역사 기술과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려고 한다. 그리고 ‘안용복사건’ 이후 대마도에서 전개된 17-8세기 한일외교의 양상

2) 17세기후반에 발생한 ‘안용복사건’에 대해서는 송병기(2007) 『개정판 울릉도와 독도』(단국대학교, pp.49-105)와 김호동(2007) 『독도 울릉도의 역사』(경인문화사, pp.96-121)에 상세하다. 특히 종래 한국에서의 안용복 연구는 그의 신상과 일본에서의 활약을 중심으로 ‘울릉도쟁계’를 해결해 독도영유권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안용복의 영웅적 삶을 높이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선행연구로는 이훈(1996) 「조선후기 독도를 지키어부 안용복」 『역사비평』 33호(역사문제연구소): 송병기(2006) 「안용복의 활동과 울릉도쟁계」 『역사학보』 192(역사학회): 권오엽(2009) 『독도와 안용복』(충남대출판부): 장순순(2012) 「17세기 조일관계와 ‘울릉도쟁계」 『역사와 경계』 84집(부산경남사학회) 등이 있다.

3) 실제 『죽도기사』의 서문에는 아메노모리호슈가 교열작업에 참여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을 아메노모리호슈의 『교린제성(交隣提醒)』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1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안용복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두 인물, 즉 요자에몬과 호슈의 행적과 기록을 통해 당시 대마도 지식인의 양면성을 고찰하고자 한다⁴⁾.

이는 작금의 독도문제와 위안부 문제, 역사왜곡문제 등으로 한일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의 기원을 탐색하고 당시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발발한 조선과 대마도간 외교교섭에서 조선의 대응전략이 무엇이었으며 이에 맞선 일본의 대처 방안은 어떠한지 파악하는데 기초적 인식의 재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한일 간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논제에 대해 대립과 충돌에 봉착했을 때,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과정을 탐구해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방향설정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竹嶋記事』에 나타난 多田与左衛門의 행적

우리나라에서 안용복은 전근대 시기에는 강역의식⁵⁾의 일환으로, 근대 전환기에는 애국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해방 운동의 차원에서 기억되고 회상되며 ‘안용복 담론’을 형성해 왔다⁶⁾. 이처럼 안용복은 시공을 초월해 역사를 통해 면면히 한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식되고 되새김질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다요자에몬은 『죽도기사』에 그 이름을 백여 번 이상 남기는데 비해, 그 이후 자료에서는 거의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⁷⁾. 그럼 『죽도기사』를 중심으로 다다요자에몬의 행적을 쫓아가 보기로 한다.

4) 일본 근세중기 성리학의 대가였던 기노시타준안(木下順庵)의 문하인 그룹에는 아메노모리호슈 이외에도 가시마호스케, 스야마쇼에몽이 있었는데, 스야마쇼에몽과 안용복사건에 관한 연구로 송휘영(2011) 「울릉도쟁계의 결착과 스야마 쇼에몽」 (『일본문화학보』 49호, pp.263-286)의 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5) 강역(疆域)이란 국경이나 영토란 근대적 개념이 세분화되기 이전에 사용된 복합용어로 생활, 문화적 동질 집단의 터전을 일컫는 말이다.

6) 진재교(2009) 「원중거의 안용복전 연구-안용복을 기억하는 방식-」 『진단학보』 108집, p.231

7) 당시 다다요자에몬과 같이 강경외교론 하에 대마도의 권익만을 대변하며 활약했던 인물은 이후 온건외교론이 전개된 17세기 말 이후 급변한 한일외교정세의 상황 하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표1〉 『竹嶋記事』에 나타난 多田与左衛門의 행적⁸⁾

사건발생일	주요 사건 내용	근거 기사	
1693	9월 ⁹⁾	쓰시마 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眞)로부터 대차사정관(大差使正官)으로 도해명령을 받고 예조참판 앞 도주의 친서(*1)를 가지고 감	『죽도기사』 p.39
	10.22	아비루소베(阿比留惣兵衛) 등과 함께 쓰시마 포구 출발	p.45
	11.1~11.2	1일 부산 절영도 도착, 2일 왜관 도착	p.46
	12.10	접위관 홍중하, 동래부사의 대청다례 개최 접위관과의 논담(*2)	p.52-57
	12.22	번주의 서간 전달과 안용복·박어둔 인도	p.58
1694	1.15	요자에몬이 아비루소베를 통해 회답서신(*3) 사본을 쓰시마 가로들에게 전달	p.74
	2.8	아비루소베가 가로(家老)의 답장을 가지고 왜관 도착	p.78
	2.9	박동지를 소환해 요자에몬의 의사 구두전달(*4)	p.81-83
	2.14	요자에몬 재차 쓰시마 가로들에게 서간 보냄	p.92
	2.18	요자에몬 일행의 출연식(出宴席)거행	
	2.22	요자에몬 일행 승선	p.97
	2.24	와니우라(鰐浦) 세키쇼(關所) 도착	p.97
	2.27	쓰시마 도착	
	2.28	후추(府中) 도주에게 복명, 가로들과 회담(*5)	p.99
	3월	대차사 정관으로 다다요자에몬 도해 지시 도주의 친서(*6) 가지고 감	p.101-102
	5.28	요자에몬 일행 쓰시마 출발	p.105
	(윤)5.13	요자에몬 일행 왜관 도착	
	8.9	요자에몬 일행을 위한 대청다례 거행 요자에몬 접대 거절	p.109 p.125
	8.25	요자에몬 일행을 위한 봉진연회식 거행 조선측 답신 돌려줌	
	9.6	요자에몬 일행을 위한 중연회식 거행	p.141
9.12	요자에몬 예조참판 등의 답신(*7) 수령	p.145-148	
9.20	요자에몬, 아비루소베를 통해 쓰시마 도시요리에	p.164	

8) 여기서 인용하는 기사는 모두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2013)의 『죽도기사』 I, pp.11-423에 의하며, 주요한 기사내용은 아래 (*)를 붙여 부연 설명한다.

		게 서간 전달	
	9.26	쓰시마 사자로 가와치마스에몬 도해, 왜관 도착 요자에몬에게 번주의 의사 전달(*8)	
	10.3	요자에몬 일행을 위한 출연석 거행 일본에 가지고 갈 답신요구	p.175
	10.6	접위관 귀경	p.187
	10.17	접위관과 동래부사 추고(推考:녹봉몰수의 죄과)당 함	p.189
	11.16	쓰시마 4대 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서거	p.192
1695	5월	덴류인 요자에몬 일행에게 귀국명령	p.202
	5.11	다카세 하치에몬, 스야마 쇼에몬, 소베 왜관 도착	p.209
	6.10	요자에몬의 ‘의문4개조’(*9) 의문4개조에 대한 답변서(*10)	p.210-216 p.235-239
	6.17	요자에몬, 스야마쇼에몬, 아비루소베 쓰시마 귀착	p.243

(*1) 대마도 도주 소요시자네(宗義眞)의 친서 내용

“근래에 귀국의 배가 일본 소속 죽도로 건너왔기 때문에 거듭해서 오지 말도록 타일러서 쫓아 보냈건만, 올 봄에 또 다시 귀국의 어민 40명 정도가 죽도로 건너와서 어렵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훗날의 증거로 삼기 위해 그 중 2명을 붙잡아 두고 사건의 전말을 소상하게 영주가 막부에게 보고하자 ‘이번 건은 돌려보내주고 다시는 그 땅에 건너오지 못하도록 지엄하게 분부하도록 하라’는 막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짓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처벌을 내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두 사람을 이번에 돌려보내고 위와 같은 취지를 사자가 소상하게 구두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2)접위관 홍중하와 요자에몬의 논담 교환

---다다요자에몬의 구두발언 : 일본 소속 죽도에 조선인이 어럽을 행하고 있었는데 처벌을 하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올 봄 또 40명의 어부가 어럽을 하기에 두 사람을 불모로 잡아 막부에 보고하자 쓰시마도주에게 인계하게 조선국에 돌려보내고 다시는 오지 말도록 처벌을 요청하라는 취지의 막부 지시를 받고 이번에 두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양국의 성신을 지키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 앞으로는 규율집행을 지엄하게 ‘급도곡사(急度曲事)’의 형벌을 내려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접위관 홍중하와 동래부사 답변: 조선인이 국경을 넘어 일본의 죽도에 건너간 것과 관련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죽도로 건너간 것도 필시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조선에

9) 구체적인 일자를 기입하지 않고 월만 기재한 것은 명확한 날짜의 표시 없이 달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하도 동일.

울릉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가려다 죽도로 간 것일 것입니다. 향후 죽도에 가지 말도록 지엄하게 분부해 두겠습니다.

---다다요자에몬의 구두발언: ‘울릉도에 건너가려다가 죽도로 건너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울릉도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조선에서 다스리고 있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속하게 되었으며 죽도가 바로 울릉도라고 들었습니다. 섬 하나를 두 개로 만들어 하나는 죽도, 하나는 울릉도라고 해두었을 경우, 향후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접위관 홍중하와 동래부사 답변: 향후 죽도는 물론 울릉도에도 도해하지 말도록 지엄하게 분부할 것입니다.

---다다요자에몬의 구두발언: 이번 건과 관련해 접대를 사양하겠습니다.

(*3)예조참판 권해의 회답 서신

우리나라는 해금을 매우 엄격하게 하여 어민들을 외양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울릉도일지라도 절대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하물며 그 밖의 섬이야 더 말할게 있습니까?

(*4)쓰시마 가로들의 답변

죽도와 울릉도가 두 개의 섬으로 보입니다. 대략 이것은 한 섬입니다. 이러한 회답서신을 막부에 제출하면 막부의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접위관의 답변: 울릉도를 기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숙고를 거친 결과입니다. 이후로 서면이 소정될 일은 결코 없습니다.(p.90-91)

---접위관의 구술서: ‘울릉’ 두 글자를 서한에 올린 것은 그만둘 수 없으니 결코 삭제하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5)쓰시마 가로(家老)들과의 회답

일도이명(一島二名)문제 재차 거론, 울릉도라는 어구를 삭제해 달라 요청
다다요자에몬 다시 사자로 임명되어 조선에 파견

(*6)쓰시마주 태주 습유 요시자네의 서간

우리가 보낸 서한에 울릉도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회답 서한에 ‘울릉도’라는 명칭이 있으니 이것을 삭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7)예조참판 이여의 답신

우리나라 강원도 울진현에 울릉이라는 섬이 있어 본 현 동해에 있는데 뱃길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민이 그 섬에 갔다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민이 건너간 땅은 원래 울릉도라는 섬으로 대나무가 많은 이유로 죽도라고도 부르는데 하나의 섬에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8)요자에몬에게 전달된 덴류인(宗義眞)의 문서

조선 측에서 전해 온 취지와 전달방법은 예로부터 선례가 없는 말도 안 되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몇 년이나 왜관에 머물더라도 대략의 의례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귀국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답신의 필사본을 건네주도록 엄중하게 요구하십시오.

(*9) 요자에몬의 ‘의문4개조’(힐문4개조)

1. 지난 81년간 조선 측은 수시로 공차(公差)를 보내 왕래 수색 검사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나바와 호키 사람들이 그 섬의 전복을 따 에도에 바쳐왔다. 그런데 귀국 사신들과 서로 만났다는 일을 들은 적이 없다.
2. 회답서에 ‘뜻하지 않게 귀국 사람들이 스스로 국경을 넘어 왔다’와 ‘귀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경을 침범해 왔다’는 말이 있는데 귀국은 이미 우리나라 변방 사람들이 그쪽에서 고기를 잡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과거에 3번(78년 전, 59년 전, 30년 전) 고기잡이 한 일이 있었는데 왜 그때 그런 뜻을 말하지 않았는가.
3. “죽도와 울릉도는 두 개의 섬으로 귀국의 죽도, 본국의 울릉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서한에 울릉도라는 말은 실려 있지 않다. 애당초 죽도가 울릉도임을 알지 못하고 두 섬의 이름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의 답서에서는 왜 “일도이명의 실상은 우리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귀주 사람들 또한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4. 82년 전(1614년) 동래부로부터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용납해서 분란의 단서를 만들겠습니까?”라는 항의가 있었는데 78년 전(1618년)에는 고기 잡는 것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 왜 두 서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가.

(*10) 요자에몬의 ‘의문4개조’에 대한 조선 측 해명

1조에 대한 조선 측 답변 : 여지승람에 사신을 파견해 왕래 수색 점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요사이 사신이 늘 왕래하지 않는 것은 해로에 위험함이 많기 때문이다.

2조와 4조에 대한 조선 측 답변 : 1614년 귀주의 두왜 1명, 격왜 13명이 의죽도를 탐지하러 왔을 때 이를 접대하지 않고 항의서한을 보냈는데 이후 세 차례 왜인이 울릉도와 죽도에 와서 고기잡이를 했을 때 침범해 온 것이라 꾸짖지 않은 것은 전후의 일이 각각 의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동맹국의 예의이며 성신으로 통교하는 의리이다.

3조에 대한 조선 측 답변 : ‘일도이명’의 처음 서신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 남궁의 관리가 고사에 밝지 못한 소치로 그를 나무랐고 다시 서한을 수정했으니 이것을 증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외교의 최고책임관으로 1693년 9월에 대마도를 출발해 11월 2일 왜관에 도착한 요자에몬은 규례대로 봉진연석을 거행한 자리에서 대마도 도주의 서간을

전달하고 안용복일행을 접위관에게 인도한다. 아울러 죽도(竹島)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안용복 등의 조업행위를 항의하는 한편 조선인이 고기 잡는 것을 금해주기를 청하였다. 대마도 도주인 요시자네의 서간은 안용복 일행이 ‘다시는 조선 어민이 일본소속의 죽도(竹島)에 건너오지 않도록 지엄한 주의를 주라’는 내용이였다. 이에 대한 답신에서 예조참판 권해(權階)는 ‘우리나라는 해금을 매우 엄격하게 하여 어민들을 외양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울릉도일지라도 절대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하물며 그 밖의 섬(죽도)이야 더 말할게 있습니까?’라며, 일도이명(一島二名)의 논법을 전개하며 맞선다.

이에 요자에몬은 외교관 접대도 사절하며 일도이명을 수정해 달라 요구한다. 이 와중에 대마도 가로(家老)¹⁰⁾들과의 회담과 대마도 도주의 서간이 재차 전달되는 일련의 사건이 이어진다.

결국 요자에몬은 ‘울릉’이라는 어구를 삭제하지 못한 채 이듬해인 1694년 왜관을 떠나기 위한 출연석(出宴席)을 거행한 후 2월 22일 대마도로 향한다. 하지만 복명을 고한 요자에몬은 수정답신을 받아오라는 가로들의 요청으로 윤달 5월 13일에 대차사정관의 신분으로 다시 조선을 찾는다. 대마도 도주는 ‘우리가 보낸 서한에 울릉도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회답 서한에 울릉도라는 명칭이 있으니 이것을 삭제하기를 부탁한다’는 서신을 보내며 조선 측 답신을 거부한다. 요자에몬은 외국 사신에게 제공되는 의복과 양식을 거절하며 대마도의 뜻을 강경하게 고수하지만 예조참판 이여(李畬)는 ‘울릉’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강원도 울진현에 울릉이라는 섬이 있어 본 현 동해에 있는데 뱃길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민이 그 섬에 갔다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민이 건너간 땅은 원래 울릉도라는 섬으로 대나무가 많은 이유로 죽도라고도 부르는데 하나의 섬에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다시 대마도주의 서간이 전달되고 조선 정부는 이런 혼란을 야기시킨 접위관과 동래부사를 추고(推考)¹¹⁾하는 등, 대마도에 대한 강경책을 밀고 나간다. 그 이후 조선정부는 일본(대마도)에 대해 유화정책이 아닌 강경외교정책을 선택하는데, ‘안용복사건’은 이후 전개된 대일본 외교정책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조선의 확고한 영토의식과 주권의식에 기반한 대일외교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같은 해 11월 16일에 대마도 번주인 소요시쓰구(宗義倫)가 서거하면서 요자

10) 가로(家老)는 당시 번(藩)의 행정장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1) 녹봉몰수의 죄과

에몬에게 귀국명령이 떨어진다. 뜻을 이루지 못한 요자에몬은 귀국 당시 ‘월문 4개조(의문4개조)’를 작성해 다시 한 번 동래부사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조선 정부의 답신이 교환된다¹²⁾.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다다요자에몬은 당시 죽도가 일본령이라는 확인을 조선 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조선 측과 대마도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담판을 이어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대차사정관이라는 최고 외교관의 신분과 책임 하에 수행된 공무였지만 대마도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약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실리와 안락함을 구하지 않고 외국 사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들을 마다한 채 대마도의 실리와 권익만을 도모하고 주장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조선 측의 기록인 『숙종실록』에는 동일 인물 요자에몬에 대해, 『죽도기사』의 기술과는 사뭇 모순·상반되는 언술과 행동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숙종실록』에 나타난 요자에몬의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한일 양국 간 사료에 형상화된 요자에몬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한다.

3. 『숙종실록』의 多田与左衛門(橋眞重)에 대한 기록

3.1. 숙종20년(1694년)의 기록

안용복이 처음 일본에 끌려갔다 돌아온 직후 접위관 홍중하(洪重夏)의 보고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조선은 『숙종실록』¹³⁾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계유년 봄에 울산(蔚山)의 고기잡이 40여 명이 울릉도(鬱陵島)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倭人)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朴於屯)·안용복(安龍福) 2인을 찢어내 잡아서 가버렸다. 그 해 겨울에 대마도(對馬島)에서 정관(正官) 굴진중(橋眞重)으로 하여금 박어둔 등을 거느려 보내게 하고는, 이내 우리 나라 사람이 죽도(竹島)에 고기잡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서신(書信)에 이르기를, “귀역(貴域)의 바닷가에 고기잡는 백성들이 해마다 본국(本國)의 죽도에 배를 타고 왔으므로, 토관(土官)이 국금(國禁)을 상세히 알려 주고서 다시

12) ‘월문4개조(의문4개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1>과 부연설명을 참조 바란다.

13) 『숙종실록』 기사내용은 ‘CD-ROM국역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한국학데이터베이스 연구소)http://gate.dbmedia.co.kr/ik/korea.asp?url_name=조선왕조실록’을 인용한다.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굳이 알렸는데도, 울릉에 어민(漁民) 40여 명이 죽도에 들어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으므로, 토관이 그 2인을 잡아두고서 한때의 증질(證質)로 삼으려고 했는데, 본국(本國)에서 번주목(幡州牧)이 동도(東都)에 빨리 사실을 알림으로 인하여, 어민을 폐읍(弊邑)에 맡겨서 고향에 돌려보내도록 했으니, 지금부터는 저 섬에 결단코 배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금제(禁制)를 보존하여 두 나라의 교의(交誼)로 하여금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하였다.

처음 요자에몬(굴진중)이 『숙종실록』에 등장한 것은 안용복 일행을 조선 측에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숙종실록』 기사는 앞에서 언급한 『죽도기사』의 내용 및 문맥에 거의 일치한다. 이에 접위관 홍중하는 왜인이 죽도라 칭하는 섬은 울릉도이니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최초 두 나라의 우호를 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일도이명(一島二名)의 논리로 ‘죽도와 울릉도는 별개’라는 취지의 서계를 전달한다. 이러한 조선 측 답신에 대해 요자에몬(굴진중)은 ‘우리나라의 울릉도란 말을 매우 싫어하여’ 울릉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한 주장과 함께 ‘울릉’을 첨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폐방(弊邦)에서 어민을 금지 단속하여 외양(外洋)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으니 비록 우리 나라의 울릉도일지라도 또한 아득히 멀리 있는 이유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물며 그 밖의 섬이겠습니까? 지금 이 어선(漁船)이 감히 귀경(貴境)의 죽도에 들어가서 번거롭게 거느려 보내도록 하고, 멀리서 서신(書信)으로 알리게 되었으니,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정의(情誼)는 실로 기쁘게 느끼는 바입니다. 바다 백성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生計)로 삼게 되니 물에 떠내려가는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마는, 국경을 넘어 깊이 들어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는 것은 법으로서도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금 범인(犯人)들을 형물에 의거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고, 이후에는 연해(沿海) 등지에 과조(科條)를 엄하게 제정하여 이를 신칙하도록 할 것이오.” 하였다. 굴진중이 우리 나라의 회답하는 서신 중에 ‘우리 나라의 울릉도란 말’을 보고는 매우 싫어하여 통역관(通譯官)에게 이르기를, “서계(書契)에 다만 죽도(竹島)라고만 말하면 좋을 것인데, 반드시 울릉도를 들어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다음 기사는 결국 대마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요자에몬이 서계를 받아보고 돌아가는 모습을 ‘피가 다하고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마도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간교하고 영악한 외교술을 구사하지만

결국 그러한 간계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굴진중이 꺾이 다하고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그제야 서계를 받고서 돌아왔다. 이에 울릉도에 배를 정박했던 사람을 치죄(治罪)하여 혹은 형신(刑訊)하기도 하고, 혹은 귀양보내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26권, 20년 (1694)2월 23일 두 번째 기사)

여기서 첫 번째 기사의 ‘귀경(貴境)의 죽도’란 표현이 문제가 되었는데 뒤늦게 숙종은 이를 회수하고 다시 답을 써서 보내게 된다. 초기의 답신으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서둘러 교정을 하지만 회수한 답신을 폐기하고 다시 보내준 답신에 요자에몬은 더욱 반발한다.

다음해 『실록』 기록에서는 요자에몬의 행적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즉, 2차 회답을 위해 조선에 도해한 요자에몬은 조선 측에게 두 번째 회답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차 회답 때 보다 상세하게 회답에 응하는 요자에몬의 행동과 언술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3.2. 숙종21년(1695년)의 기록

○지난해에 접위관(接慰官) 유집일(兪集一)이 조정에 돌아왔는데, 차왜(差倭) 굴진중(橋眞重)이 오히려 제2서(第二書)의 회답(回答)을 요구하자, 남구만이 말하기를, “교활한 왜(倭)의 정상이 절통(絶痛)하다. 어찌 또 그 제2서에 답서를 보낼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두 서신(書信)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니, 한번 답장을 했으면 충분하다.”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남구만(南九萬) 중심의 소론이 집권하면서 대일본 외교는 강경노선을 걷게 된다. 이 와중에 이루어진 요자에몬의 2차 회답 요구에 조선정부는 완고하게 거절하는 태세를 취한다.

○굴진중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돌아가지 않고는 기어코 자신이 청한 것을 성사시키려 하였는데, 마침 왜국(倭國)에서 굴진중을 소환하여 귀국(歸國)하라고 하니, 굴진중이 드디어 6월 15일을 길을 떠나는 시기로 잡고 동래부에 편지를 보내 네 가지 조항을 힐문(詰問)하며 이를 조정에 전달해서 개시(開示)해 줄 것을 청하였다.

요자에몬(굴진중)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힐문4개조’를 작성해 동래부사에게 전달하지만 동래부사 또한 엄하게 훈계해 이를 물리친다.

○이 서신이 미처 전달되기 전에 굴진중이 또 스스로 자기의 의사로 문장을 만들어 회답하는 서계(書啓)를 여기에 따라 고쳐 줄 것을 청하니, 동래부(東萊府)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물리쳤다.

○굴진중이 드디어 귀국하는 시기를 6월 10일로 앞당겨 정하고,

○굴진중(橋眞重)이 이미 배를 띄워 절영도(絶影島) 근처에 이르렀으나, 동래부에서 뒤쫓아가서 조정에서 개시(開示)하는 답서를 전달하니, 굴진중이 이에 다시 동래부에 서신을 보내 육설을 마구 찢부었다.

요자에몬은 거의 2년간을 왜관에 머물며 조선 측 답신을 수정하려 하지만 남구만이 이를 거절하면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게 대마도로 돌아가게 된다. 귀국일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한 답신을 받지 못한 요자에몬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힐문4개조’를 조목조목 만들어 동래부사에게 전달하는데, 이마저 관철되지 못하자 ‘마구 육설을 찢부었다’는 세밀한 기록까지도 실록은 전하고 있다. 이처럼 실록에 기록된 요자에몬은 대차사정관이라는 신분과는 걸맞지 않게 상대국 조선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몰상식하고 뻔뻔하게 쓰시마의 뜻을 수용시키려는 강경 외교론자이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간악한 인물로 묘사된다.

실록의 말미에서는 다시 한 번 조선이 당한 수치와 모욕을 상기시키는 기록을 남긴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교활한 왜인(倭人)의 정상은 비록 매우 절통(絶痛)한 일이나 이미 첫번째 서신에 답하였으니, 또 엄중하게 물리치는 뜻으로 그 두번째 서신에 답하는 것이 생각건대 무슨 손상될 것이 있겠는가? 남구만이 잘못된 견해를 고집스럽게 바꾸지 않아 끝내 당당(堂堂)한 국가로 하여금 한낱 차왜(差倭)에게 무한한 매도(罵倒)와 치욕을 당하게 하였으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있겠는가?”

일개 차왜에 불과한 요자에몬에게 조선이 말할 수 없는 매도와 모욕을 당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미 ‘요자에몬=대마도’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요자에몬은 조일외교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 굴진중이 2년을 왜관(倭館)에 머무르며 반드시 요구를 달성하려고 기약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사신의 임무를 성취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조정에서 준례에 따라 공급하는 물품을 일체 취용(取用)하지 않았고, 해진 옷

을 입고 밥을 구걸해 먹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초를 겪었지만, 마침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바다를 건너 귀국할 때에 이르러 조정에서 전후에 걸쳐 공급한 백미(白米) 1천 8백 60섬을 가져다 동래부로 서신과 함께 환송(還送)하였다.

또한 요자에몬은 왜관에 머무는 동안 외국 사자에게 매일 공급하는 물품(日供)을 일체 취하지 않고 해진 옷을 입고 밥을 구걸하며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귀국할 때에는 환송 사자에게 보내는 선물조차도 모두 돌려준다. 실록은 이런 요자에몬의 행동을 규례와 법도에 어긋난 행위로 규정짓는다.

○이때 굴진중의 일로 인하여 중외(中外)가 흉흉(洶洶)하여 모두 말하기를, ‘임진년과 같은 변란이 멀지 않아 장차 일어날 것이다.’고 하였다. 인심(人心)이 물결처럼 흔들려 불안에 차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안정되었다.(〈조선왕조실록〉숙종28권, 21년(1695)6월20일 3번째 기사)

요자에몬의 귀국 후 조선 측에서는 대마도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임진왜란과 같은 변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한 정세에 휩싸이게 된다.

이와 같이 ‘안용복 사건’은 조선의 지식인(식자층)들로 하여금 울릉도문제를 통시적으로 고찰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전에는 일본과의 교린정책 때문에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가 없었는데,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울릉도 실태를 조사하는 등 역사적 고찰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울릉도에 관리를 보내 섬을 관리하고 지키는 수토(搜討)정책이 실시되고 내부적으로 확고한 영토의식을 확립하게 된다. 물론 대일외교 정세가 온건론의 남인에서 강경론의 소인정권으로 일변한 상황 하에서 갑술환국으로 영의정에 오른 남구만이 남인의 대일본 온건론을 정면 비판하고 강경대응을 주장한 정황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안용복사건’은 조선 후기 조일 외교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마도의 대조선 외교에 대한 대처 전략을 읽어낼 수 있는데, 다다요자에몬은 대조선 강경외교책을 상징하는 대응 방향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또 다른 대마도의 대조선 외교론을 주장했던 쪽에 아메노모리호슈가 있다. 그의 『교린제성』을 통해, 조선 후기 대마도의 또 다른 조일 외교의 흐름과 논의에 대한 함축적 인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4. 雨森芳州의 『交隣提醒』과 ‘안용복사건’

4.1. 雨森芳州(1668-1755)

호슈는 대마번에서 조선과의 외교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유학자이다. 현재의 시가현 다카쓰키초(滋賀縣高月町)출신으로 17,8세에 에도로 나와 대학자 기노시타 준양(木下順庵)의 문하생이 되었으며 1689년에 대마도에 취직한다. 참판사(參判使)의 도선주(1702, 1703, 1704), 재판(1728)으로 조선을 왕래하였으며, 1711년과 1719년 통신사행 때에는 쓰시마번의 진문역(眞文役)¹⁴으로 통신사일행을 에도까지 수행한다. 1748년 은퇴한 후에는 부산 왜관의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어 통역 교육과 문학에 전념한다. 쓰시마 번에 종사하는 동안 『교린수지』(1703년, 조선어교과서), 『교린제성』(1728) 등의 저술을 남긴다¹⁵.

특히 『교린제성』은 호슈가 조선외교의 지침서로 작성하여 대마번에 제출한 것으로 조선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54개조에 걸쳐 서술한 책인데, ‘안용복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사건해결에 관여했다고 유추되는 호슈가 ‘안용복사건’ 종결 후 30여년 후에 기록하고 있어 그 상관성이 주목할 만하다¹⁶.

4.2. 『交隣提醒』에 나타난 ‘안용복 사건’과 조일관계

①왜관이 두모포에 있을 무렵까지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으로 인한 전후의 여위(餘威)라는 것이 남아 있었다.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조선인에게 생트집을 부려서 밀어부쳐 두면, 역관들은 그들의 입장이 곤란하게 된 나머지(양국의)중간에서 무슨 일이건 좋은 결과를 맺도록 주선하여, 되지 않을 일도 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포악스럽게 으르렁거리서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조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들 알고 있었다.

왜관을 초량으로 옮기고 나서는 여위(餘威)도 점점 희미해져 함부로 트집을 잡거나 억지를 부려 일을 성사시키기도 어려운 형세에 놓이게 되었다. (중략) ‘울릉도사건’까지는 위력과 공갈을 써서라도 이쪽(쓰시마)의 주장을 관철시켜야만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7년간 교섭을 했어도 그런 일은 통하지 않을 뿐만

14) 한문을 다루는 관리

15) 한일관계사학회 편(2001) 『역주 교린제성』 국학자료원, pp.11-12

16) 이러한 상관성에 관해서는 권오엽, 오오니시 토시테루(2011) 『개정판 죽도문답』(한국학술정보, p.110)의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아니라, 오히려 쓰시마의 평판에 지장이 있다는 쪽으로 형세가 변하게 되었다. 때문에 최근 30년 전(1700년경)부터는 위와 같은 풍조도 사라져 지금은 그럭저럭 대처하고 있는 형편이다¹⁷⁾.

『교린제성』은 ‘안용복사건’ 이후 조선후기 조일외교의 양상이 크게 전환됨을 기술하고 있다. 조선후기 조선은 대마도에 대한 교린정책을 재검토하게 되는데 그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호슈는 ‘안용복사건’ 이후 일본의 여위(餘威)가 더욱 약화되어 쓰시마의 평판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모포왜관에서 초량왜관으로 이전한 것이 1678년인데 여위의 외교가 통용된 시기를 호슈는 그 이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안용복사건’ 이후에는 더욱 일본의 무력을 앞세운 외교가 통용되지 않음을 경계하고 있다.

②대개 임진왜란 이후 萬松院(宗義智)대부터 光雲院(宗義成)대 초년까지는 조선인이 일본의 여위를 두려워하였다. 光雲院대 중기부터 天龍院(宗義眞)대의 초년까지는 일본 사람을 피하였다. 그런데 天龍院대의 중기 이후는 이미 일본 사람에게 (조선인들이)익숙해지게 되었다. 두려워하고 피할 때는 저쪽(조선)이 저자세로 나오지만, 익숙해지면 강자가 고자세를 취하게 되고 약자가 저자세를 취하게 마련이다. 天龍院의 재위 중기까지는 아직 익숙해진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요새는 아주 익숙해졌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타고 넘는다’하여 위엄이 조선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쪽은 오히려 비굴하게 되었다고 해야 할 형세가 되었다¹⁸⁾.

그리고 ②에서도 대마도의 변주 소요시자네(宗義眞) 이후, 조선과 대마도의 형세가 역전되어 조선이 위엄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대마도가 비굴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③울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선의 의견은 어떠한지, 인교와 그 밖의 일들이 이번은 없겠는지 하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때부터 동래(부사)를 높이 존경하여 잘 살펴 본 바, 동래(부사)는 3품의 사람이므로 도노사마(쓰시마변주)보다 높은 지위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¹⁹⁾.

③은 ‘안용복사건’ 이후에야 조선의 사정과 풍속을 비로소 알게 되고 동래

17) 이하 『교린제성』의 기사인용은 한일관계사학회편(2001) 『역주 교린제성』(국학자료원)에 의한다. 32.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무력에 대한 조선의 경계, p.46.

18) 『역주 교린제성』 52.조선인 취급에 대한 교훈, p.68.

19) 『역주 교린제성』 53.동래부사의 지위, p.69.

부사의 지위도 그때에야 인식하게 되었다며 일본인의 무지를 각성시키는 기록이다. ‘안용복사건’ 이후 대마도는 무력을 앞세운 강경외교가 통용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다.

④“일본인은 성질이 난폭하고 사나워서 의로써 굴복시키기 어렵다”고 신숙주의 글에도 적혀 있다. 그 나라의 폐해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송사접대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일본인의)난폭하고 사나운 성질을 (조선측이)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임진, 정유재란 후에 남아있던 일본의 무력을 앞세운 위세가 지금에 와서는 매우 열어졌으니 앞으로 쓰시마 사람들이 종전의 무의를 잃고 학습을 태만히 하게 되면 반드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무개의 나무’처럼 사태는 흘러갈 터이다²⁰⁾.

④는 임진란 이후 일본의 무위(武威)가 약화되었으니 조선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교의 마음가짐과 조선풍습과 문화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됨을 경계하는 기사이다.

이와 같이 호슈의 『교린제성』은 임란 이후, 특히 ‘안용복사건’을 전후해 대마도에 대한 조선의 인식이 크게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임진왜란을 통해 쓰시마는 조선이 일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쓰시마는 조선과의 외교교섭에 있어서도 힘으로 위협하는 자세로 임했음을 위의 자료는 잘 나타내고 있다. 즉 호슈가 지적한 ‘여위(餘威)의 외교’란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의 공포심을 최대한 이용한 강경론의 위협 외교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진란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줄어들고 특히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강경 외교론으로 돌아선 조선 조정에 대해 호슈는 금후 조일 관계가 곤란해 질것을 우려하게 된다. 이는 대마도 내부에서 아메노모리호슈와 같은 지식인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대조선 정책에 관해 친선교린과 유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5. 多田与左衛門과 雨森芳州를 통해 본 ‘한일관계’

다다요자에몬은 『죽도기사』에서 대차사정관이라는 신분으로 조선에 수차례 건너가 대마도의 권익을 대변해 끝까지 의지를 꺾지 않는 투사적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3년간 조선 왜관에 머물며 외교 사자(使者)에게 제공되는 식

20) 『역주 교린제성』 54.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교류한다는 뜻은?, pp.70-71.

사와 의복을 거부하고 스스로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조선 조정의 답변서에 대해 스스로 ‘힐문 4개조’를 작성해 동래부사에게 전달하여 조선 상부를 움직이려는 현명함과 지혜로움, 용기와 용맹함을 겸비한 외교관적 면모를 보여준다. 일본 측 최고 외교대표로서 대마도의 실리와 이익증진을 최우선시 했던 애국적인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그의 대응전략의 본질은 대마도의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책략에서 비롯되었으며 당시 대마도와 일본의 대조선 외교방향 및 대처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불굴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안용복의 현명한 대응전략과 조선정부의 강경외교노선으로 대마도의 외교적 현안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는 실패한다.

다다요자에몬은 결국 대차사정관으로서 에도막부를 대표해 외교적 중개교섭을 수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대마도와 조선간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와 조일 양국의 우호관계 형성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안용복사건’ 이후 대마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조일 양국의 교린정책이 재검토되고 갈등관계가 심화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숙종실록』에서 다다요자에몬은 피가 많고 간교한 인물로 기술된다. 이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조정의 답신을 전달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마구 욕설을 퍼붓는 무례하며 광폭한 자로 등장한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지와 같은 빈곤한 생활도 자처하는 간사한 자이다. 이러한 요자에몬의 활약으로 ‘대마도=요자에몬’이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될 정도로, 요자에몬은 대마도에 대한 조선의 함축적 인식의 반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마도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에도막부 간 외교적 중개임무를 수행하면서 은밀하게 울릉도를 점유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었다²¹⁾. 이러한 울릉도 침탈의 야욕이 ‘안용복사건’으로 분출되면서 조선의 영토정책 또한 재검토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다다요자에몬이라는 동일 인물과 동일 사건에 대해 『죽도기사』와 『숙종실록』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사뭇 다른 기술과 묘사를 하고 있다. 물론 국가적 현안문제나 역사적 영토문제에 관해 이분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한일 양국의 입장과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은

21) 대마도는 고려시대부터 왜구의 주요근거지로 정벌과 회유의 대상이었다. 임진란 이후 양국의 국교재개에 힘쓴 대마도는 에도막부의 외교적 중개업무를 맡았으며 1609년 대마도와 조선은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체결했다. 기유약조는 대마도의 도항 및 양국 통교에 관한 규정으로 과거에 비해 대마도의 활동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조약이었다. 이때 대마도의 아베시고로 마사유키는 막부로부터 죽도도해면허장을 얻어 울릉도에 가서 그곳의 나무와 수산물로 막대한 부를 쌓게 된다. 오니시 도시테루(2011), 권정 율김 『오니시 도시테루의 독도개관』(인문사, pp.219-224)

흥미롭다.

한편, 다다요자에몬이 『죽도기사』에서 용맹스런 애국 인물의 선명함을 드러낸 이후, 일본 역사와 사료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과 대조적으로 대마도의 유학자였던 아메노모리호슈는 한일 양국 공통의 관심대상으로 부상하여 현재 까지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²²⁾.

조선후기 일본(대마도)의 양면적 속성은 다다요자에몬과 아메노모리호슈 두 인물에 응축되어 나타난다. 즉 에도막부 시기 일본에서는 대조선정책에 대해 교린정책과 강경론,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었는데, 호슈는 조일관계에서 선린교류를 항구적으로 지속할 이론적 바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요자에몬은 대마도인의 교활한 음모를 분출시킨 주역으로 인식할 수 있다.

위의 두 인물에 일본(대마도)의 양면성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후기 조일관계에서 요자에몬과 같이 조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반을 둔 강경외교책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편으론 호슈와 같이 친선교린을 주장하며 한일 간 선린외교적 면모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조선유화책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용복사건’은 요자에몬으로 대표되는 대마도의 간교한 정체와 야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조선 정부의 영토의식과 외교정책이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또 한편으론, 조선후기 일본의 무위(武威)가 약화되고 조선의 대일본정책이 강경외교론에 힘이 실리며 전환기로 접어드는 시점과 맞물려 호슈의 친선유화책은 대마도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게 된 면이 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조일 양국 외교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대마도의 지식인 요자에몬과 호슈에 대한 양면적 인식론은 어느 정도 시의성을 갖고 있었다. 곧, 17-8세기 일본의 식자층 사이에서 조선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는 가운데 ‘안용복사건’을 시발점으로 대 조선 외교정책의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 두 가지 흐름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요자에몬과 호슈로 대표되는 양면적 속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외교문제란 항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절대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역사문제나 영토문제는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는 사안이므로 국가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와 시각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한일 간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논제로 한일관계

22)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과거 아메노모리호슈 선생의 외교철학인 ‘성신교린(誠信交隣)’처럼 한국과 일본은 신의와 성실로 사귀어야 한다”고 연설한 것은 유명하다.

가 난관에 부딪히고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우리는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립과 갈등의 원인과 근원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양국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교류하려는 아메노모리호슈의 ‘성신외교론’이 깔려 있어야 한다. 호슈는 과거 대마도 지식인을 훈계하며 ‘많은 사람들이 성신으로 교류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 글자의 뜻을 잘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성신이라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진실을 가지고 교체하는 것²³⁾’이라고 했다. 한일관계 격동의 시대에 호슈의 경계(警戒)가 다시 한 번 회자되며 생명력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원문텍스트>

독도사료연구회(2013) 『죽도기사』 I, pp.11-423

한일관계사학회(2001) 『역주 교린제성』 국학자료원

『조선왕조실록』은 ‘CD-ROM국역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한국학데이터베이스 연구소)http://gate.dbmedia.co.kr/ik/korea.asp?url_name=조선왕조실록을 인용한다.

<단행본 및 논문>

권오엽(2009) 『독도와 안용복』 충남대출판부

권오엽, 오니시 도시테루(2011) 『개정판 죽도문담』 한국학술정보, p.110

김호동(2007) 『독도 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pp.96-121

송병기(2007) 『개정판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 pp.49-105

_____ (2006) 「안용복의 활동과 울릉도쟁계」 『역사학보』 192, 역사학회

송휘영(2011) 「울릉도쟁계의 결착과 스야마 쇼에몽」 『일본문화학보』 49호, pp.263-286

오니시 도시테루(2011), 권정욱김 『오니시도시테루의 독도개관』 인문사, pp.219-224

이훈(1996) 「조선후기 독도를 지킨 어부 안용복」 『역사비평』 33호, 역사문제연구소

장순순(2012) 「17세기 조일관계와 ‘울릉도쟁계」 『역사와 경계』 84집, 부산경남사학회

진재교(2009) 「원중거의 안용복전 연구-안용복을 기억하는 방식-」 진단학보108집, p.231

23) 『역주 교린제성』 p.70.

要 旨

Ambivalent property of the late Joseon Dynasty Japan (Tsushima) is represented with the Tada Yojaemon condensation in double figures in Amenomori Hoshoe. In other words, in Tokugawa Japan, Kyorin time and hard-line policy against Joseon policy, were the two great flow, Hoshoe is a person tried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to permanently sustain the relationship friendly exchanges at one trillion days.

And the contrary is in Yojaemon can be recognized as the protagonist reveals the insidious machinations of the Tsushima seen. That we can see these two figures reveals interesting as it is ambivalent nature of Japan and, if this time there were tough diplomacy book is based on negative perceptions of shipbuilding as driven to Yojaemomn, on the other hand, such as the late Joseon Hoshoe Kyorin in Japan claiming a friendly relationship, and you can see that symbolically reveals shipbuilding yuhwachaek one days to form a friendly diplomatic aspects.

キーワード : Tada Yojaemon, Amenomori Hoshoe, Tsushima,
diplomatic aspects

투 고 : 2014. 8. 31
1차 심사 : 2014. 9. 13
2차 심사 : 2014. 10. 4